

# Aēsop.

안녕하세요, Future Fables by Aesop입니다. Aesop의 Future Fables는 어른을 위한 우화 시리즈로 삶의 교훈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Literary Hub와 함께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늑대들의 <더 팩>인데요. 이 글을 쓴 리버스 솔로몬은 수상 작가이자 젠더운동가이며 열렬한 조류관찰자라고 하네요.

오늘의 우화를 들어보세요...

블랙 울프는 주둥이를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고—이럴 때 자비를 베풀어 줄 누구든 무엇이든 그 대상을 향한 마지막 시도로 보인다—그런 다음 죽으려고 숲에 몸을 누였다. 끊어지고 뺏뺏하고 온갖 것들이 말라붙어 굳은 그녀의 털은 군데군데 빠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을 때, 배의 털은 피부는 흙과 맞닿았다.

그녀는 이제 벌거벗은 늑대라고 불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친 늑대. 숨을 헐떡이는 늑대, 관절이 아픈 늑대, 배가 불룩한 늑대.

지난 10년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쳤고 함께하는 무리도 없었다. 숲은 친절하지 않았다.

블랙 울프에게도 한때는 연인이 있었다. 다정한 사촌은 어떤 비극으로 왼쪽 앞다리를 못 쓰게 돼 절뚝거리며 걸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이름은 실버였다. 그녀는 소나무, 민들레, 곤충 내장, 사슴 간, 사슴 창자, 사슴 위, 세이지, 토끼 연골과 토끼 뼈, 강 북쪽에서 흘러온 염수, 거위털, 낡은 신발 가죽, 고무, 도토리, 연한 무화과 잎, 달산양의 털, 스톤산양의 털, 흰바위산양의 털, 소금, 수액, 그리고 수 년 전 화재로 인한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실버에게는 고요함이 있었다. 움직이고 동참하기 보다는 지켜보고 냄새 맡기를 좋아했다.

블랙 울프가 죽으려고 땅에 눕는 행위는 실버와 함께 누웠을 때 느꼈던 행복의 느낌을 주었다. 대지와 바다와 하늘, 세상 그 자체가 그 나뭇잎의 방식으로 연인이었고, 언제나 받아주는 그런 유형이었다. 주둥이에서 흥골과 사타구니, 발바닥까지 기분 좋게 핏을 준다. 자연을 핏을 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 열매를 바치는 행위는 실은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버는 입으로 핏을 주는 것을 좋아했다. 올라타 놀리거나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에 이를 세우고 혀로 그녀의 턱으로 핏을 올리고 그녀의 귀 뒤에 코를 묻으면 그녀는 강아지처럼 킁킁거리고 펄쩍 뛰어올랐다가 블랙 울프 옆에 축 늘어지곤 했다.

그것은 이제 몇 년 전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 실버는 죽었다. 이전 시대의 잔해에서 새로운 땅이 생겨나고 블랙 울프에게 자연의 재료로써 거름의 역할을 제외하면 이 새로운 땅에서 그의 자리는 없는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종국에는 이르게 되는 전부였다. 한 줌의 흙. 모두에게는 그들의 차례가 있고 그녀에게는 그녀의 차례가 있었다.

블랙 울프는 깨어나지 못할 잠을 향해 눈꺼풀이 떨리도록 두었다. 산들바람이 그녀의 코를 간지럽혔다. 나무들 위에 남아있던 잎과 잔가지들이 그녀의 위로 떨어졌다. 반 마일 떨어질 곳에서 나는 사슴 소리에 귀가 쫑긋했지만 그녀는 일어나 사슴을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이 말랐다. 더 이상 침이 생성되지 않았다. 깨어날 수 없는 꿈이 그녀를 괴롭혔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블랙 울프는 고통스러운 각성과 고통스러운 잠의 중간 그 어딘가에 있었다. 비가 내렸다. 신맛이 났다. 블랙 울프는 어쩔 도리 없이 빗물을 핏을 했다.

블랙 울프가 코 위에 있는 거미 냄새를 맡은 것은 닷새가 지난 후였다. 얼마간의 노력을 기울여 블랙 울프는 점막 분비물과 모래가 뒤섞인 점착물로 생긴 딱 달라붙은 눈가에서 눈꺼풀을 떼어냈다.

거미가 블랙 울프의 사체를 포식하려고 여기에 왔나?

“좀 괜찮아?” 스파이더가 물었다.

블랙 울프는 거미의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여느 거미가 아니라 스파이더라는 이름을 가진 거미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둘은 지난 두어 해 동안 몇 번 지나쳤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마치 숲, 아니 세상 크기만한 거미줄을 만들었거나 코끼리를 먹이로 삼기라도 한 듯이 그녀에게서 끈적한 거미줄 냄새가 진동을 했다.

“좀 괜찮아?” 스파이더가 다시 물었다.

블랙 울프는 신음 소리를 내고 정신을 차렸다.

“네 피부가 감염돼 빨갱고 화끈거려서 올드 엘크에게 너를 강가로 끌고 가서 고름을 씻어내고 농포를 짜내도록 했어.”

“올드 엘크?” 블랙 울프는 갈라지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블랙 울프는 그 회색의 거대한 미인을 얼마간 보지 못했다. 블랙 울프가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그녀도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었다. 몇 년 전에 큰 비가 내렸을 때 블랙 울프는 병들고 굶은 날씨를 잘 견디지 못하는 올드 엘크가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큼 큰 구덩이를 팠다.

“블루 버드는 치유 효과가 있는 잎들을 모아 네 피부에 덮어 주었어.” 스파이더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온통 거미줄로 감아서 너를 위한 새로운 털을 만들었어.”

블랙 울프는 눈을 깜박이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 그제서야 스파이더가 좀 괜찮아졌냐고 물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했다.

차가운 물, 치유하는 잎, 거미줄로 만든 새로운 보호막으로 블랙 울프의 피부는 실제로 더 좋아졌고 더 이상 까지거나 염증이 없고 피부를 유일하게 보호하던 털은 대부분 사라졌다.

“나는 죽을 뻔했어.” 라고 블랙 울프가 말했다.

“음,” 근처 덤불에서 열매를 따던 올드 엘크가 말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고 이번에는 운명을 막을 수 있었어.”

블랙 울프는 한동안 살아서 좋았던 기억이 없었지만, 올드 엘크, 스파이더, 블루 버드와 같은 일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오가면서 내내 바로 이 숲에 있어 주었다.

“그게 더 나올지 모르겠어.” 여전히 약하고 피곤하지만 젊은 시절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열정으로 가득차서 말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면 어떨까?”

“음.” 올드 엘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음.” 스파이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음.” 블루 버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멋진 일인지. 거기에 있다. 그물, 은색의 끈적한 거미줄.

이 우화는 작가의 말처럼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닫게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Future Fables by Aesop은 Literary Hub가 함께합니다. 주제곡 작곡은 딘 블런트, 팻캐스트 믹싱, 디자인, 마스터링은 Unit의 한나 웹스터였습니다.